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

-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지역 가치로서의 '정(情)'

송용섭 (영남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1. 서구중심적 인공지능 연구의 특징 및 한계와 지역 가치의 필요성
2. 지역적 가치로서의 한국의 정(情)과 정(情)의 재해석
3.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7>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21K2A9A2A20101640).

• ABSTRACT •

Artificial Intelligence Felt of *Jeo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ull of
Jeong: *Jeong* as a Local Value for the Development of AI for Symbiosis
with Humans

Assistant Prof. Song, Yong Sup (YOUNGNAM THEOLOGICAL UNIV. & SEM.)

This study attempts to critically reflect and reinterpret *Agape*, the self-sacrificing love, which has been presented as a core value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symbiosis with humans in Western society by reflecting national and local,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In particular, this thesis aims to derive a humanistic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I for symbiosis with humans by selecting *Jeong* from Korean cultural theological tradition and comparing it with *Agape* in Western technological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newly proposed concept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I for symbiosis with humans is “AI felt of *Jeong* and AI full of *Jeong*.” This paper argues that Korea’s *Jeong* can provide non-Western-center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values to the ethical system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I for symbiosis with humans.

Key words: Jeong, Agape, Artificial Intelligence, Robert M. Geraci, Sang Jin Choi

I. 들어가는 말

인공지능 기술은 전지구적으로 과학과 문화와 실생활의 영역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분야와 산업 및 군사용 로봇과 감시체계와 법률과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게임과 SNS 챗봇과 상담과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적용 범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에 인공지능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 아직 한계가 명확히 정해진 상태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성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미래가 열려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우리는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의 실현 또는 초월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전지구적으로 문화와 지역 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를 뛰어넘어 도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종교 혹은 종교적 가치는 인간과 더불어 존재해야할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교와 인공지능 기술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인공지능개발에 있어서 종교와 문화와 지역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글로벌한 인식의 필요성과 이의 기여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무엇보다 종교적 전통과 수행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가 실제적으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정책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역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공지능 기술이야말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서구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지라도, 이의 설계와 글로벌한 실사용에 있어서는 지역, 국가,

종교, 문화에 따라 반영해야 할 가치와 전통이 각각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문화적인 가치들을 포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개발자들에게 제언하는 것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속도만큼이나 국내외적으로 절실하다.

이미 서구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지역 문화적인 종교적 가치가 개발 과정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와 기술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미국의 종교학자인 로버트 M. 제라시(Robert M. Geraci)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동조하는 많은 서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유대-기독교 문화의 묵시론적 영향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진행 중임을 분석하였다.¹⁾ 또한, 조지 자카다키스(George Zarkadakis)는 서구 사회 속의 유대-기독교 전통은 인공지능이 자기 희생적 사랑인 아가페(Agape)의 가치를 내재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²⁾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서구 중심적 문화 가치와 목표만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실사용에 적용될 때는,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 신식민주의의 전파가능성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종교 문화 가치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 가치로 제시되어온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 신학적 전통 중에서 ‘정(情)’을 선택하여 서구 기술문화 속에 내재된 유대-기독교적 전통 속의 ‘아가페’와 비교 분석하여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1) Robert M. Geraci, "Apocalyptic AI: Religion and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 no. 1 (2008); *Apocalyptic AI: Visions of Heaven in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 George Zarkadakis, *In Our Own Image* (New York, NY: Pegasus Books LLC, 2016).

인문학적 기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한국 문화의 ‘정(情)’의 개념과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친밀하고 수용적인 관계 형성을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情)’은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필요한 윤리적 체계에 비서구중심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인 문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II. 본문

1. 서구중심적 인공지능 연구의 특징 및 한계와 지역 가치의 필요성

데이비드 노블(David Noble)은 1997년에 처음 출판한 기술 종교(The Religion of Technology)에서, 서구에서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들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³⁾ 그는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중세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신학과 수도원주의와 천년주의 운동과 같은 기독교 전통속에서 서구인들이 기술을 통해 인간을 어떻게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지, 서구 사회가 어떻게 기술을 통하여 혼돈의 현세를 초월하여 새아담으로서 새에덴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려 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세기의 인공지능 기술과 유전공학은 기계를 통해 죽음의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을 갈망하게 하고 제한적인 육체의 완전성을 추구하게 하였지만, 노블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판타지들이 실상은 중세 기독교적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를 기계의 또다른 종류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평한다.⁴⁾ 노블이 분석한 서구의 기술발달사에 근거하여, 로버트

3) David F. Noble, *The Religion of Technology : The Divinity of Man and the Spirit of Invention* (New York: Penguin Books, 1999[1997]), 9-10.

제라시 역시 “기술에 대한 서구의 접근은 기독교 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구의 기술 개발의 많은 부분을 추동해 나아가는 아이디어는 바로 세계와 인간 안에서 완전성(perfection)을 성취하려는 기독교적 목표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

한편, 21세기에 이르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 문화적 충격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같은 미래 기술 옹호자들의 사상을 적용한 각종 소설과 영화들로 인하여, 미래 사회에 등장할 과학기술의 발전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트랜스휴머니즘 또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리는 이러한 과학중심주의 사상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육체의 점진적 향상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함으로써 불멸을 성취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개발하여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의 정신을 우주에 보내 행성들을 컴퓨터로 변환시켜 우주를 깨우려는 우주론적 목적을 지닌 미래사회 비전운동으로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다.⁶⁾

로버트 제라시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인 묵시론적 인공지능(Apocalyptic AI)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유대-기독교의 묵시론적 전통’에서 주요 개념 및 서사와 궁극적 비전을 차용했다고 분석한다. 제라시는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과학기술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상을 “묵시론적 인공지능”이라 칭하여 종교와 기술간의 상호작용을 명시

4) 위의 책, 170-73.

5) Robert M. Geraci, “Narrativ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ligions of Modernity, and the Future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송용섭·박일준 번역, “인공지능과 현대 종교들, 그리고 미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들,” in 2021-22 한국연구재단 한미인문분야 특별교류 협력사업 강연문 (2022), 3.

6)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New York: Viking, 2005), 14-17.

적으로 표현하였다.⁷⁾ 즉, 21세기에 들어서 더욱 발전하게 된 미래기술 연구와 대중적 과학문화 속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와 이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디지털 구원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점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라시는 이러한 서구 기술 연구와 다양한 문화에 부각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무관한 미래과학사상 또는 과학지상주의 운동으로 보인다 해도 실상은 종교와 얽혀 있다는 것, 즉, 트랜스휴머니즘이 서구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유대-기독교적 묵시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키즈와일과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특이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경우 인간이 결국 이들을 인격체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이런 경우에 현재 진행중인 인공지능 로봇은 단순히 실험실 연구나 산업용에 그치지 않고 가사 도우미 로봇처럼 인간과 더불어 살게 되는 사회적 인공지능 로봇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인공지능 로봇의 지능이 점차 발전할수록, 이들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제라시에 따르면, 자의식을 지닌 사회적 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이들은 종교적인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잘 고안된 프로그램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의적 선택”에 의해 종교적이 되려할 것이다.⁹⁾

따라서, 기독교인의 경우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서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Agape)를 자의식을 가진 사회적 인공지능 로봇에게 가르치고

7) Geraci, *Apocalyptic AI: Visions of Heaven in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52, 87.

8)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377-380.

9) Robert M Geraci, “Religion for the Robots,” in *Sightings* (Chicago: Martin Mart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자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공존하게 될 사회 생활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인공지능에게 아가페의 학습과 실천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아가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인공지능을 위한 종교윤리적 가치와 규범이 되어 인간과의 상호교류와 공존을 위한 효과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¹⁰⁾

그러나, 미래 글로벌 사회의 다문화, 다종교 현장에서는 기독교의 아가페를 사회적 인공지능의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아가페가 글로벌 사회에서 사회적 인공지능을 위한 최상의 규범이 되기에는 과거 기독교와 결탁했던 식민주의적 유산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 또한, 아가페를 글로벌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에는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가 비판했던 ‘정신의 획일화(Monocultures of the Mind)’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서구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신의 획일화’는 지역 문화와 지식을 제거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척도에 따라 도구화하고 열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다양성과 잠재성을 파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하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아가페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아가페와 유사하여 상호이해와 교류에 거부감이 없거나 발전적 보완수용이 가능한 비서구적 지역 가치들의 발굴과 성찰을 통한 적절한 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아래의 인용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0) Yong Sup Song, “Religious AI as an Option to the Risks of Superintelligence: A Protestant Theological Perspective,” *Theology and Science* 19, no. 1 (2021): 74.

11) Vandana Shiva,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1993), 2-3.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제시되는 대부분의 가치 혹은 지침들이 여전히 서구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Algorithmwatch.org가 마련한 목록에서 대부분의 지침들은 서구 국가들이나 국제 조직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신들의 지침을 발표한 비서구 국가는 오직 두 국가, 즉 중국과 일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가 마련한 문서들은 그들 자신의 지적·정규적 전통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나온 문서들은 프라이버시·보복성·공정성 및 정의와 같은 잘 알려진 개념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가를 논의하는 방식은 그들 자신의 지적 자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윤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우리의 지구적 사색에 커다란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¹²⁾

따라서,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윤리적 가치와 규범을 설정하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을 논의할 때, 지역적 가치의 발굴 및 적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국의 불교 윤리학자 헝라다롬(Hongladarom)은 불교의 가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윤리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그는 “불교의 ‘연민(慈悲, karuna)’이라는 용어는 모든 유정적(有情的) 존재들에게서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바람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인데, 윤리적 인공지능 설계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인공지능이 유정적 존재들(즉,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¹³⁾ 그가 주장하는 불교의 자비와 연민과 같은 가치는

12) Soraj Hongladarom, *The Ethics of AI and Robotics: A Buddhist Viewpoint*, 김근배 외 옮김,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서울: 씨아이알, 2022), 8.

13) 위의 책, 355.

필요한 경우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기능하는 기독교의 아가페와 유사하여 일정부분 상호이해와 교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서구 기독교적 가치에 종속되지 않기에 아가페와 상호이해가 가능한 자비를 추구하는 인공지능개발은 불교문화권에서 수용 및 전파에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서구적 가치 외에는 구체적 논의나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헝라다름이 불교의 입장에서 지역 가치를 제안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한국 문화 신학적 전통에 기반한 지역 가치를 모색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가치야말로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필요한 전지구적 논의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적 가치로서의 한국의 정(情)과 정(情)의 재해석

1) 지역적 가치로서의 한국의 정(情)

한국의 정(情)은 한국 사회에 자리잡고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가치이자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필요한 지역 가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학자들은 정을 한국인의 고유한 성품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오랜기간 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한 학자인 최상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사람들의 속마음인 본성(마음씨)이 착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있어 정이란 “호의적인 대인관계속에서 자연적으로... ‘발동된 속마음’이다.¹⁴⁾ 타민족에게도 유사한 감정은 있지만, 정은 수천년의 한국 문화와 공동체적 경험을 통하여 독특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을 서구적 방식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거나 개념화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합의된 정의 개념조차

14)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000): 208.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¹⁵⁾ 이러한 이유는 정이 한국인의 다양한 사회적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관계성의 종류와 밀도를 내포하는 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정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한 이후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는 정을 서술함으로써 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정은 대상과의 지속적인 시간과 밀도 깊게 경험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깊이 있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한국인의 정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의미를 유지하여 수백년전의 정의 용례와 현대의 용례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은 “남녀간의 애정을 의미”하거나 친구간의 “우정”을 포함하여, “부부관계, 사제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무르익은 연인관계마저도 ‘사랑이 깊어졌다.’는 말보다 ‘정이 들었다.’는 말을 사용하며, 사랑이 식었거나 애증이 뒤섞인 부부관계에서도 흔히 ‘정 때문에 산다.’고 말한다.”¹⁶⁾

한국인의 정은 한국 사회 속의 “우리(we)”라는 공동체성을 통해 생성되었다.¹⁷⁾ 한국 사회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공동체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고 공동체 밖의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해왔다.¹⁸⁾ 하지만, 김성문은 이러한

15) 고미숙, “정(情) 윤리의 정립: 배려 윤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 no. 2 (2014): 3;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서울: 학지사, 2011), 34.

16)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4-37.

17) Sungmoon Kim, “The Politics of Jeong and Ethical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6, no. 3 (2006): 224.

18) 한국인의 정은 이러한 내적 강요성과 외적 배타성의 결과로 우리 안에 속한 대상들의 실수나 잘못을 눈감고 넘어감으로써 윤리적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국인의 관계에 있어 정의 중요성과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여 주장을 전개하였다.

정치적 우리를 사회심리학적 우리와 구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자아(interdependent self)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완전히 융합되어 사라지는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집단적 자아(group ego)를 급격히 폭력적으로 표출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신,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안의 상호의존적인 자아는 타인과 “우리”라는 관계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강화시키는(empowerment) 중첩된 자아들을 의미하게 된다.¹⁹⁾

이렇게 중첩되어 상호의존적인 자아가 “우리”안에서 경험하는 정을, 최상진은 형태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형태의 정은 “관계적 정” 또는 “대상지향적 정”이다.²⁰⁾ 이러한 정의 특성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생기는 정이다.”²¹⁾ 고미숙 역시 정의 특성 중에 하나를 관계적 지향성으로 소개하면서, “정은 대상이 있으며, 정은 지향적인 것”이라 말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관계적 정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사물, 동물, 환경 등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²²⁾ 다른 말로, 심리학적으로 사랑이 자기와 대상을 모두 지향할 수 있는 반면에, 정은 자기애적 사랑과 달리 자신을 향하지 않으며 대상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상이 부재한 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정을 느끼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인간이지만, 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상을 지향할 수 있다.²³⁾

고미숙에 따르면, “정의 대상이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사유가 갖고 있는 편협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19) 위의 책.

20)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7-38.

21)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정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208.

22) 고미숙, “정(情) 윤리의 정립: 배려 윤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5.

23)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43.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기능하게 한다.²⁴⁾ “우리”라는 집단속에서 서로 중첩되어 상호의존적인 자아가 느끼는 정이 인간을 넘어 모든 존재로 향할 때, 인간은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적 사유의 틀이 모든 존재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정든 물건, 정든 고향’ 등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은 그러한 사물에 대해서 정을 느낄 수 있다. 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대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최상진은 둘째 형태의 정을 “성격 특질로서의 정”이라 구분한다.²⁵⁾ 최상진에 따르면, “정은 ... 격렬한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접촉 과정에서 ... 잔잔하게 쌓여서 느껴지는 누적적 감정 상태.”²⁶⁾ 정은 오랜 시간 걸쳐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구성한 주관적 개념화”로서, 이러한 사건과 감정이 아무리 오래되고 깊었다 해도 “이를 정이라고 의식하는 계기가” 있어야만 정의 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²⁷⁾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정은 과거의 사건과 감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야”하며, 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건과 감정을 회고하면서 개인이 추론과정을 거쳐 파악하고 인식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²⁸⁾ 내가 “일상생활에서 정을 느낀다는 말은 상대의 마음 속에 나

24) 고미숙, “정(情) 윤리의 정립: 배려 윤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5.

25)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7-38;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정 (미운정 고운정) 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208; 최상진 외, “한국인의 정(情) 표상” in Conference Proceedings, 한국심리학회 (1997), 553.

26)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9.

27) 위의 책.

28)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in Conference Proceedings, 한국심리학회 (1993),

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거나 인지함을 뜻한다.”²⁹⁾ 즉, 나와 상대의 관계속에서 정의 감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내가 이를 정으로 인지하게 될 때, 이러한 정의 감정은 대상지향적이며 동시에 성격 특질적인 것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질의 정이다.

이렇게 서로 중첩된 자아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정은 나와 대상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³⁰⁾ 이규태는 이를 발효된 콩의 끈적끈적함을 통해 비유로 설명한다. 콩을 오래 놔두었을 때 콩이 발효되어 서로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탈하지 못한다.³¹⁾ 이러한 비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은 미운정·고운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개념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인의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 “일단 든 정은 상대방의 흉이나 나쁜 점까지도 수용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게도 한다.”³²⁾ 따라서,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미운정·고운정의 개념은 일단 정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든 타인을 떠나거나 그러한 관계를 쉽게 단절시키지 못하는 한국인의 심성을 잘 드러내준다.

2) 아가페와 정(情)의 재해석

한국인의 정은 조건 없는 용서나 이타적인 사랑 또는 자기희생을 동반하므로,³³⁾ 이러한 측면에서 정은 기독교의 아가페와 맞닿아 있다고 볼

29)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8.

30) 이규태, 『한국인의 정서구조』, vol. 2 (서울: 신원문화사, 1994), 73; Wonhee Anne Joh, *Heart of the Cross : A Postcolonial Christology*, 1st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21.

31) 이규태, 『한국인의 정서구조』, vol. 2, 73.

32)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정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210.

33) 이규태, 『한국인의 정서구조』, 2, 71.

수 있을 것이다. 정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일에 민감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대를 조건없이 도와주고도 도와준 티를 내지 않는다.³⁴⁾ 한국 문화권에서는 “부모-자녀 간에 일체감, 연대성” 및 정을 바탕으로한 “이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attachment)이 높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이 자녀의 성격 특질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들에 정이 많다고 볼 수 있다.³⁵⁾

하지만, 한국인의 정은 서구의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와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정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여성신학자인 앤 조(Anne Joh)는 자기희생적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가 자신이 “정의 개념과 연결시켜온 사랑의 급진적(radical) 형태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³⁶⁾ 앤 조는 이렇게 아가페와 유사하여 아가페의 일부로 불릴 수 있으면서도 정이 서구적 개념의 아가페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와 마찬가지로, 정은 종종 타자, 심지어 억압하는 타자에 관련해서도 극적인 희생을 수반하지만, 아가페가 행해지는 많은 방식들과 달리, 정은 자기비움의 자기희생(self-emptying self-sacrifice)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부정(self-abnegation)이 아니다. 자기희생과 대조적으로, 정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의도적이고, 현명하며, 알면서 포기하는 결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성은 포기되지 않는다.³⁷⁾

34)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39-40.

35) 위의 책, 41.

36) Joh, *Heart of the Cross : A Postcolonial Christology*, 72.

37) Joh, “Love’s Multiplicity: Jeong and Spivak’s Notes,” in *Planetary Loves : Spivak, Postcoloniality, and Theology*, ed. Stephen D. Moore and Mayra Rivera (New York:

십자가의 사랑인 아가페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자기희생적 사랑이 그동안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자기부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면, 한국인의 정은 이러한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앤 조의 관점에서, 고유한 관계성으로서의 정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비판한 자기희생이 아니다.”³⁸⁾ 정이 지닌 관계성은 “폭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반박하는 상호인정과 공명(resonance)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정 속에서 “폭력이 주체의 형성과 포기의 반대 방향적이고 개인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새롭게 이해되기 때문”이다.³⁹⁾ 결국, 이러한 아가페와 연관되어 한국인의 정을 이해할 때, 정은 자기희생이라는 사랑의 급진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여 자기희생을 감행하는 자기부정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폭력마저도 주체적으로 새롭게 정반대로 재해석함으로써 타자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이 된다.

한국인의 정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와 언어를 넘어 자기희생적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인이 느끼는 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겹쳐져 있는 일부 특성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은 중첩되고 상호 의존적인 개인들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단절할 수 없는 끈적하고 밀도 높은 관계성을 형성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 동등한 존중과 인정이 때로 부재하거나 희박하다 할 지라도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호 인정하여 의도적으로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주체적 의지에 바탕을 둔 깊이 있고 끈끈하며 결속력 강한 사회심리적 유대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180.

38) 위의 책, 184.

39) 위의 책.

감이다.

이러한 정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속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성품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인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자 윤리적 가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국내 학자들이 정을 한국인의 고유 성품으로 여기고 주로 이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편이라면, 국외 학자들은 이미 정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앤 조는, “정은 한국인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존중될 때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감성이 폭력적 대면에서 권력의 노선을 완화하고 변형시키도록 허용될 때, 나는 정의 존재를 발견해왔다”라고 주장한다.⁴⁰⁾ 이러한 앤 조의 주장은 서구에서도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감정이 한국인의 정서에 정이라고 불리울만한 정서적 특질과 대상지향성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 감정이 현실에서 덕스러운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재미 자기심리학 여성신학자인 안젤라 손(Angella Son)은 “정이란 자기대상(selfobject) 경험속에 있는 공감에 대한 한국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신학적 용어로 대체하여 “정을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위한 동정심의 패러다임적 체현(a paradigmatic embodiment of compassion)”이라 규정하였다.⁴¹⁾ 물론, 안젤라 손이 제안한 것처럼 과연 정을 한국적 공감(empathy)이나 성서적 동정심(hesed로서의 compassion)으로 등치시킬 수가 있을지에 대하여는 학자적 시각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앤 조와 함께 안젤라 손이 정을 비한국인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40) 위의 책, 188.

41) Angella Son, “Jeong as the Paradigmatic Embodiment of Compassion (Hesed): A Critical Examination of Disparate and Dispositional Jeong,” *Pastoral Psychology* 63, no. 5-6 (2014): 741.

정서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문화신학적 관점에서 지역 가치인 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다른 보편적 종교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⁴²⁾

3.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지역적 가치로서 한국인의 정이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된다면, 정은 서구중심적 가치인 아가페와 비판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 공동체에서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에게 요구할 가치의 핵심을 아가페로 제시하게 된다면, 비서구적이고 지역적 가치로서 한국인의 정은 아가페와 상호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앞서 언급한 서구중심적 가치로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반다나 시바가 비판한대로 전지구적 가치의 보편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온 서구중심적 가치가 처음부터 보편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서구의 지역가치에 불과했던 것을 식민주의적 확장에 의해 전지구에 보편적으로 확대시킨 것이었다면,⁴³⁾ 한국의 정은 서구중심적 가치로서의 아가페를 역으로 지역적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지역가치의 하나로 재정립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정은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임과 동시에, 앤 조와 안젤라 손이 주장한대로,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보편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윤리적 가치이자 공감적 정서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정이 전지구적 지역가치로 확산된다면 아가페와 비교하여 인간이 향후 인공지능에게 가질 수 있는 자연

42) 위의 글, 742.

43) Shiva,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2.

스러운 감정이자 상호공존을 위한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인의 정은 한국 사회의 우리(we)라는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밖의 존재들에게 배타성을 지니는 한계도 있지만, 일정 기간동안 시공간적으로 함께하여 우리라는 감정적 연대를 소유한 사람들 혹은 사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주체적으로 인지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 초기에 인간을 돕기 위한 가사 도우미 로봇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같은 시공간속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게 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인간이 먼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을 느끼고 인지하는 것은, 그것에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를 느끼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인공지능에 아가페를 느끼는 것보다는 정을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지역적 가치인 한국인의 정이 전지구적으로 소개가 되고 인공지능개발에 윤리적 가치로 적용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향해 느끼는 감정을 정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인지된 정의 관계는 인간과 정든 인공지능이 공생하는 것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의 정은 서구 문화에서 인공지능에 기대하는 아가페보다 인간과의 공생관계를 비강요적으로 촉발함으로써 보다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은 실상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자카다키스가 앞서 언급한 서구 기독교 문화속의 아가페는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가페를 내재한 인공지능에게 봉사와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신학에서 비판해 왔던 대로, 이러한 아가페는 그동안 서구 문화에서 여성에 대해 강요해왔던 자기비움과

자기부정과 자기희생을 대상만 변경하여 인공지능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커즈와일이 주장한대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올 때에도 서구 중심주의적 아가페를 인공지능에 기대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이전에 여성신학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앤 조가 분석한대로 정은 자기희생과 같은 사랑의 급진적 형태를 띠면서도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타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호인정하여 의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심리 속의 ‘인정머리 없다’는 말은 곧 ‘인간성이 없다’는 심리 논리”를 뜻하듯이, 한국의 지역가치로서 정은 그 대상이 정서적으로 인간적인지, 인간적이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심리적 척도로 기능하기도 한다.⁴⁴⁾ 따라서, 인공지능을 인격체로 인정하게 될 미래에, 인간이 정 많은 인공지능을 ‘인정머리 없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즉, 상용화 초기에 인간이 인공지능에 정이 드는 단계, 즉, 정든 인공지능의 단계를 지나서, 인간에게 정든 인공지능, 즉, 정 많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정 많은 인공지능이 정 때문에 인간을 위해 자기희생을 하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강요된 자기비움이나 자기희생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상호존중과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기희생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정은 상대적으로 더욱 윤리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자기희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선택하도록 이끌 수 있는 정은 문화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적 가치인 아가페와

44)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55.

상호교류 및 재해석을 이끌 수 있는 종교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앤조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정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여,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한 예수의 아가페를 재해석할 수 있는 틀로서 정을 제시한 바 있다.⁴⁵⁾ 그녀는 정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재해석하여, 예수가 “고통의 손에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기독교의 십자가 신학에 정을 융합하였다.⁴⁶⁾

한국의 정의 이렇게 문화신학적으로 해석되어 아가페와 교류하고 재해석을 이끌 수 있는 종교적 가치로 작용한다면,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있어서 서구를 포함한 전지구적 도덕가치 및 개발 방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구문화적 관점에서는 아가페를 내재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봉사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단일 뿐 인간이 지향할 아가페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 사회적 인공지능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스스로 하나님 앞의 피조물로 남아있지 않는 한,⁴⁷⁾ 인공지능의 지성이 높아지고 특이점에 다가갈수록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의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종교적 가치로 작용한다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의 인간중심적 사유가 지닌 편협함을 벗어나 인공지능을 인간이 끈끈한 정을 느낄 친밀한 대상으로 수용하게 하고, 정을 내재하고 학습한 인공지능이 인간

45) Joh, *Heart of the Cross : A Postcolonial Christology*, 86.

46) 위의 책., 87.

47) Song, “Religious AI as an Option to the Risks of Superintelligence: A Protestant Theological Perspective,” 75.

과의 상호연결성과 의존성을 경험하여 정든 인간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이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정든 인공지능, 그리고, 정 많은 인공지능은 미래에 인공지능의 지성이 인간을 초월하게될 특이점 이후라도 정에 충만하여 자신의 무한에 가까운 권력을 인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진정한 공존은 상대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위해 주체적으로 자기희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을 통해 그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III. 나가는 말

한국의 정은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하여 국가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전지구적인 윤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은 서구 사회에서는 아가페를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로 수용하여 왔지만, 기독교의 아가페는 인공지능개발과 확산을 통해 서구중심적 가치를 디지털 식민주의적으로 보편화하고 미래에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정을 보다 심도깊게 연구하고 이를 기독교의 아가페와 비교 분석하여, 정의 관점에서 아가페를 재해석하고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정과 함께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정의 서구중심적 가치로서의 아가페를 재해석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으며, 대상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성격특질적인 정의 특성상 아가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윤리 가치이자 비서구중심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전지구적인 문화 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이다. 이 개념은 그동안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서구중심적 가치인 아가페의 유용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한국의 지역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가치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정 의 기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공지능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즉,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망은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연구의 결과물이지만 과학적 실험과 연구의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실현성 혹은 과학적 실제성에 대한 사실 진술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라 말할 수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하여는 인문학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공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심도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의 공생을 위해 앞서 불교의 연민·자비를 지닌 인공지능의 개발을 제안했던 형라다롬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공감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⁴⁸⁾ 이러한 형라다롬의 인문학적 제안은 지역 가치로서의 정을 내재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다양한 정 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이는 사회적 인공지능이 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정을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며, 이후에는 한국인의 공동체 속에서 정 많은 한국인과의 ‘우리’의 관계를 형성할 때 정 많은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48) Hongladarom, *The Ethics of AI and Robotics: A Buddhist Viewpoint*, 김근배 외 옮김,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358.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래에 정 많은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정 많은 인공지능은 ‘인정머리 없는 인간’ 혹은 ‘인정머리 없는 인공지능’보다 더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정든 인간과의 상호연결성과 의존성 속에서 정 때문에 끈끈하게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아가페-정의 덕을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정(情) 윤리의 정립: 배려 윤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2 (2014), 1-29.
- 이규태. 『한국인의 정서구조』. Vol. 2. 서울: 신원문화사, 1994.
-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 _____.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In Conference Proceedings. 한국심리학회 (1993): 3-21.
- 최상진 외. “한국인의 정(情) 표상.” In Conference Proceedings. 한국심리학회 (1997): 553-573.
- 최상진 · 김지영 · 김기범. “정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000): 203-22.
- Geraci, Robert M. “Narrativ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ligions of Modernity, and the Future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송용섭, 박일준 번역. “인공지능과 현대 종교들, 그리고 미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들.” In 2021-22 한국연구재단 한미인문분야 특별교류 협력사업 강연문 (2022), 1-13.
- Hongladarom, Soraj. *The Ethics of AI and Robotics: A Buddhist Viewpoint*. 김근배 외 옮김.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서울: 씨아이알, 2022.
- Geraci, Robert M. “Religion for the Robots.” In *Sightings*. Chicago: Martin Mart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 _____. “Apocalyptic AI: Religion and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 no. 1 (2008), 138-66.
- _____. *Apocalyptic AI: Visions of Heaven in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oh, Wonhee Anne. *Heart of the Cross : A Postcolonial Christology*. 1st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Love’s Multiplicity: Jeong and Spivak’s Notes.” In *Planetary Loves: Spivak, Postcoloniality, and Theology*, edited by Stephen D. Moore and Mayra Rivera.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 Kim, Sungmoon, "The Politics of Jeong and Ethical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6, no. 3 (2006), 212-41.
-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New York: Viking, 2005.
- Noble, David F. *The Religion of Technology: The Divinity of Man and the Spirit of Invention*. New York: Penguin Books, 1999[1997].
- Shiva, Vandana.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1993.
- Son, Angella. "Jeong as the Paradigmatic Embodiment of Compassion (Hesed): A Critical Examination of Disparate and Dispositional Jeong." *Pastoral Psychology* 63, no. 5-6 (2014), 735-747.
- Song, Yong Sup. "Religious AI as an Option to the Risks of Superintelligence: A Protestant Theological Perspective." *Theology and Science* 19, no. 1 (2021), 65-78.
- Zarkadakis, George. *In Our Own Image*. New York, NY: Pegasus Books LLC, 2016.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5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종교 문화 가치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 가치로 제시되어온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 신학적 전통 중에서 ‘정(情)’을 선택하여 서구 기술문화속에 내재된 유대-기독교적 전통 속의 ‘아가페’와 비교 분석하여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인문학적 기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한국 문화의 ‘정(情)’의 개념과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자기희생적 사랑인 아가페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친밀하고 수용적인 관계 형성을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함축하여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정든 인공지능과 정 많은 인공지능’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情)’이 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정 많은 인공지능개발에 필요한 윤리적 체계에 비서구중심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인 문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정, 아가페, 인공지능, 로버트 제라시, 최상진
